

# 율곡 이이의 생애와 사상

Kunggom(kunggom@gmail.com)

2006년 6월 21일

## 1 율곡 이이의 생애<sup>1</sup>

### 1.1 태어날 때부터 호조 좌랑이 되기까지(1536-1564)

조선 시대의 대유학자 율곡(栗谷) 이이(李珣)는 1536년(중종 31년) 12월 강릉 북평(北平)에 있는 외갓집 오죽헌(烏竹軒)에서 찰방(察訪) 이원수(李元秀)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는 주로 어머니 사임당(師任堂) 신씨(申氏)에게서 학문을 배웠으며, 1548년(명종 3년)에 13세의 나이로 진사 초시(進士初試)에 합격한다.

1551년(명종 6년)에 어머니가 죽자, 그 충격으로 허무함에 빠져 3년상을 마친 뒤인 1554년 [이 해에 성혼(成渾)과 친구가 된다] 19세의 나이로 금강산에 들어가 불교를 연구한다. 그러나 1년 후에 하산한 뒤 총 11항목으로 된 자경문(自警文)을 짓고 다시 유학 공부에 몰두한다.

1558년(명종 13년) 23세 되던 해에 강릉 외가로 가던 도중 예안(禮安) 도산(陶山)에 들러서 당시 58세였던 대유학자 이황(李滉)과 성리학적인 문제를 토론하였는데, 이후로도 이이는 이황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서신으로 토론을 한다. 이 해 겨울에 치른 별시에서 《천도책(天道策)》을 지어 장원(壯元)하였는데, 이 글에는 이이가 가진 세계관과 사상이 잘 드러나 있다.

1564년(명종 19년) 명경과(明經科)에 장원하자, 아홉 번 치른 과거에서 모두 장원했다 하여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이라는 별명이 붙는다. 이후 사가독서(賜暇讀書)를 거친 뒤 호조 좌랑(戶曹佐郎)으로 임명된다.

### 1.2 호조 좌랑이 되었을 때부터 관직에서 은퇴할 때까지(1564-1574)

호조 좌랑이 된 이이는 이후 예조 좌랑·사간원 정언(正言)·이조 좌랑·사헌부 지평(持平)과 같은 청요직(淸要職)을 두루 거치게 된다.

1568년(선조 1년)에는 천추사(千秋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부교리(副校理)로 춘추관 기사관(春秋館記事官)을 겸하여 《명종실록(明宗實錄)》 편찬에 참여한다.

1569년(선조 2년)에 사직하고 해주(海州) 석담(石潭)으로 내려갔다가 파주(坡州) 율곡(栗谷)으로 간다. 1571년(선조 4년) 청주 목사(淸州牧使)로 복직하지만, 학문 연구를 하기 위해 다음해 여름에 다시 사직하고 파주 율곡으로 내려가서 성혼과 성리학에 관한 토론을 벌인다.

1573년(선조 6년) 홍문관 직제학(直提學)이 되었다가 동부승지(同副承旨)와 참찬관(參贊官)을 겸직하게 되고, 다음해에 승정원 우부승지(右副承旨)·병조 참지(兵曹參知)·사간원 대사간(大司諫)을 지낸 뒤 사직한다. 그 후 황해도 관찰사로 임명되었으나 다시 사직한다.

<sup>1</sup>이이의 생애에 대한 자료는 [엠펙스 백과사전](#)(브리태니커)의 '이이' 항목과,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두산동아)의 '이이' 항목과, 《21세기 원색세계대백과사전》(태극출판사, 1999) 24권 54쪽의 '이이' 항목과, 《율곡사상의 이해 : 교육사상을 중심으로》(손인수, 교육과학사, 1995)에서 얻었다.

### 1.3 관직에서 은퇴했을 때부터 다시 관직에 돌아오기까지(1574-1581)

황해도 관찰사에서 사직한 이이는 이후 파주 울곡과 해주 석담을 오가면서 학문 연구에 전념한다. 이이는 이 기간 중에 글을 배우는 어린이를 위한 교재인 《격몽요결(擊蒙要訣)》과 기사(箕子)에 관한 책인 《기사실기(箕子實記)》를 저술하고, 향약(鄉約)과 사창(社倉) 제도를 시행한다.

1581년(선조 14년)에 조정의 부름을 받고 다시 관직에 나가게 된다.

### 1.4 다시 관직에 돌아왔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1581-1584)

다시 관직에 나간 이이는 사헌부 대사헌(大司憲)과 예문관(藝文館) 제학(提學)을 겸임하고,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거쳐 양관대제학(兩館大提學)을 지냈으며, 이듬해에는 이조·형조·병조의 판서와 우참찬(右參贊)을 역임한다.

1583년(선조 16년)에는 성혼 등을 천거하고, 10만 양병설을 주장한다. 또 동인과 서인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오히려 동인이 장악하고 있던 삼사(三司)에 의해 봉당을 조장한다는 탄핵을 받고 사퇴했다가 3개월 후 다시 판돈녕부사(判敦寧府使)에 이어 이조판서가 된다.

1584년 1월 서울 대사동(大寺洞)의 자기 집에서 49세의 나이로 죽는다.

## 2 율곡 이이의 사상

### 2.1 배경

중국 남송(南宋) 때의 유학자 주희(朱熹)가 집대성한 학문인 성리학(性理學)에서는 자연과 사회의 발생과 운동을 이기론(理氣論), 즉 이(理)와 기(氣)의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sup>2</sup> 16세기에 들어 성리학을 중요시하던 사림(士林)이 정치의 중심 세력이 되자 성리학에 대한 이론적 탐구도 보다 활발해졌는데, 그 당시 성리학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사단칠정(四端七情)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심성(心性)을 이기론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였다.<sup>3</sup>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들어왔을 때부터 16세기까지는 ‘이(理)는 기(氣)의 바깥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기(氣)에 우선하는 객관적 실재(實在)다.’라는, 이른바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이 성리학계의 일반적 견해였다. 이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사단(四端)은 이(理)가 발(發)한 것이고, 칠정(七情)은 기(氣)가 발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전개된 것이 이황의 주리론(主理論)이다.<sup>4</sup>

그런데 16세기에 들어서 이 이기이원론과, 이기이원론을 기반으로 하는 주리론에 반대하는 견해가 나타난다. 바로 1559년(명종 14년)에 기대승(奇大升)이 이황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이황이 그 의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면서 8년에 걸친 사단칠정 논쟁이 일어난다. 이후 이이가 기대승의 견해를 계승하면서 이기일원론에 기반을 둔 주기론(主氣論)을 확립하게 된다.<sup>5</sup>

<sup>2</sup>엠펙스 백과사전의 ‘성리학’ 항목과, ‘이기론’ 항목을 참고했다.

<sup>3</sup>엠펙스 백과사전의 ‘주리론’ 항목을 참고했다.

<sup>4</sup>엠펙스 백과사전의 ‘주리론’ 항목과, ‘이기이원론’ 항목을 참고했다.

<sup>5</sup>엠펙스 백과사전의 ‘사단칠정’ 항목과, ‘주기론’ 항목을 참고했다.

## 2.2 이이의 사상에 대한 설명

주기론에 따르면 이(理)와 기(氣)는 세상의 만물을 이루는 본질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理)는 시공을 초월하여 만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형이상적(形而上的) 원리이며, 기(氣)는 형체가 있어서 어느 한 가지에 국한되는 형이하적(形而下的) 질료이다. 여기에서 이(理)는 만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기(氣)는 어느 한 가지에만 국한되는 것을 이통기국(理通氣局)이라고 한다. 이이는 이것을 물을 여러 가지 그릇에 담는 것에 비유했는데, 그릇의 모양이 서로 다른 것은 기(氣)가 국한되는 것(氣局)이요, 그릇 속에 담긴 것이 모두 물인 것은 이(理)가 만물에 통하는 것(理通)이라고 하였다.<sup>6</sup>

또 주기론에서는 이(理)로 인해 기(氣)가 발(發)하면 이(理)가 거기에 올라탄다(乘)고 하는데, 이것을 기발이승일도(氣發理乘一途)라고 한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기(氣)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理)이고,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바로 기(氣)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理)와 기(氣)는 섞이지는 않지만,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호 의존·협력 관계’라는 결론이 나온다.<sup>7</sup>

이이는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이황과는 다른 사단칠정론을 주장한다. 즉 사단은 칠정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써, 다만 칠정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총괄하여 말하는 것이고 사단은 그 중에서 선한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심에는 천리(天理)도 있고 인욕(人欲)도 있는 것이므로 인심과 도심은 근본적으로 둘이 아니라고 보았는데, 다만 그 마음이 도의(道義)를 위해 발한 것인지, 육체적 욕망을 위해 발한 것인지에 따라 인심과 도심이라 구분하는 것이라고 했다.<sup>8</sup>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인간에게 원래 인욕이 있다는 것은 즉 인간은 욕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무조건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 행동하게 되면 반드시 경쟁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혼란과 무질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규범 체계, 즉 예(禮)를 따라서 마음 속의 기질을 선하게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sup>9</sup>

이것이 간추린 율곡 이이의 사상이다.

<sup>6</sup>엠포스 백과사전의 ‘성리학’ 항목과, ‘이이’ 항목을 참고했다.

<sup>7</sup>엠포스 백과사전의 ‘기발이승일도설’ 항목과, ‘이이’ 항목을 참고했다.

<sup>8</sup>엠포스 백과사전의 ‘이이’ 항목을 참고했다.

<sup>9</sup>《서울대 권장도서 100권》 중 [96. 율곡집](정원재)을 참고했다.